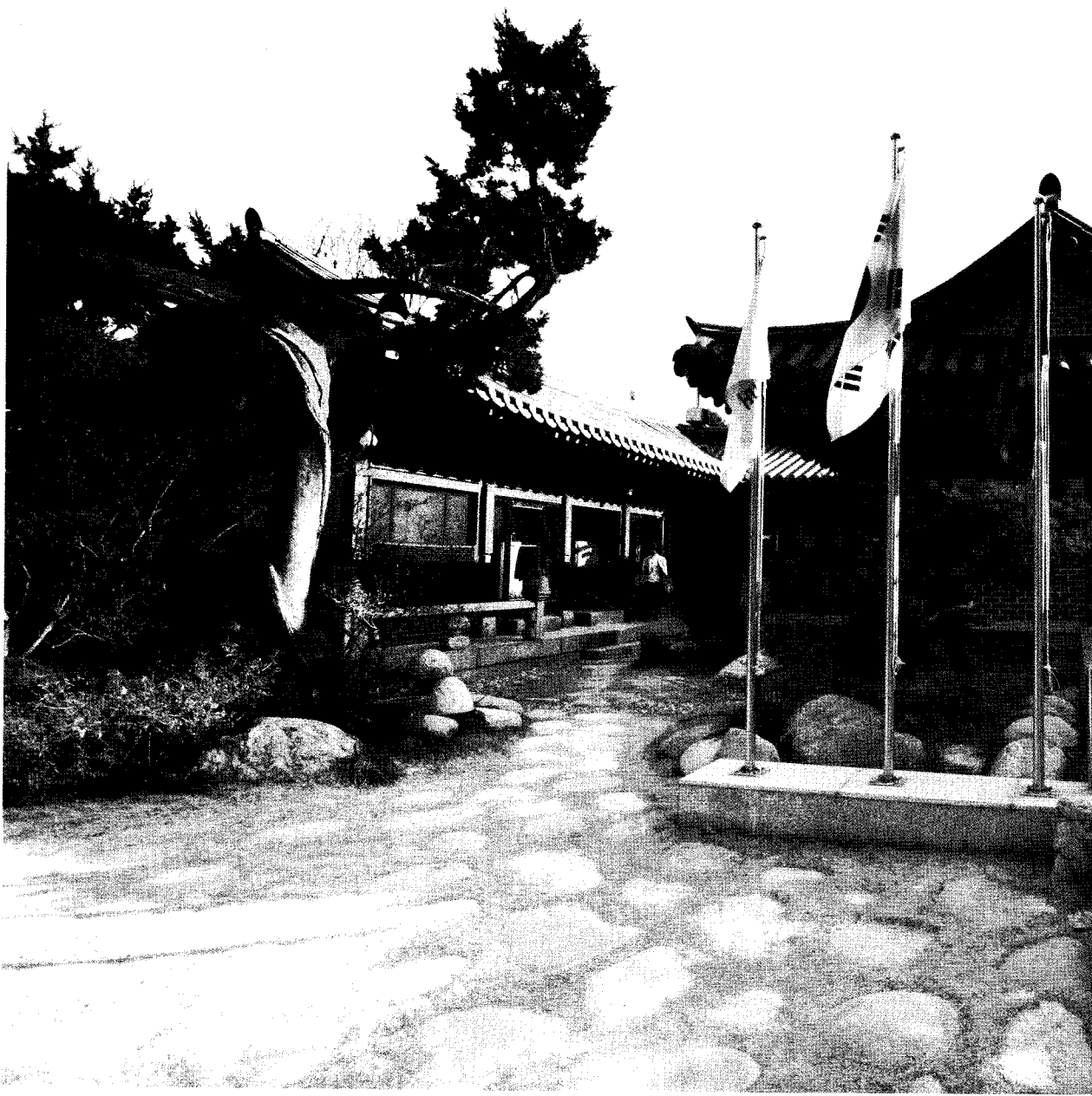




한옥으로 지은 관공서

‘혜화동사무소’

대통령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로부터 건축환경문화로 선정된 ‘혜화동사무소’



혜화동사무소는 한옥도 현대인의 생활과 업무를 담아내는 업무 시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신축이 아닌 기존 한옥을 개조했다는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혜화동사무소는 1940년대 지은 도시형 한옥을 2005년 연말 동사무소로 개조한 것이다. 선진화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이달의 좋은 건물로 뽑은 이유는 “한옥이 많은 혜화동의 특성을 살려 전통문화의 얼을 잇고자 했던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글/사진 • Willy기자



건축계에선 한옥의 좋은 개조사례로 유명한데, 우리 협회지에서 자세히 게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우선 이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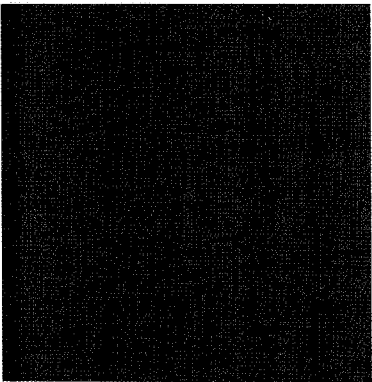
이 건물은 1940년대 지어졌으며, 대지는 800평방미터, 연면적은 250평방미터입니다. 전체적 형태는 ㄷ자 모양인데, 이배치를 그대로 두고 내부는 현대식 사무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성곽 8문의 하나인 혜화문의 명칭을 따 지은 혜화동은 인구 1만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성균관이 위치해 이 일대가 교육기관이 많았고 현재에도 가톨릭대학교, 경신중고교, 동성중고교, 서울과학고 등이 있으며 주거형태 또한 옛 유림학자들이 많이 거주해 유형문화재와 민속자료로 지정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혜화동사무소는 전국에서 구경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외국인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사무소로 이만큼 유명한 곳도 없을 듯 합니다.

괜찮은 생각, 발상의 전환 하나가 서울시에 또 다른 명소를 더해 주었습니다. 한옥 동사무소답게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 달 한 번은 한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전국최초의 한옥 공공청사 “혜화동사무소”

글·이용재(건축평론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혜화동사무소는 왕따가 된다. 종로구 19개동 가운데 유일하게 전용 사무실이 없는 거다. 1만 2천명의 혜화동 주민들이 열받았다. 서울시 소유 건물에 평생 세 들어 산 거다. 눈치밥.

2004년 한옥이 매물로 나왔다. 1975년 공무원에 입문해 이제 30년 만에 동장에 오른 김시만(1948~)은 종로구청장 김충용(1939~)을 찾아갔다. 동장은 5급공무원. 대단한 독심. 9급에서 출발해 5급 가는데 30년이 걸린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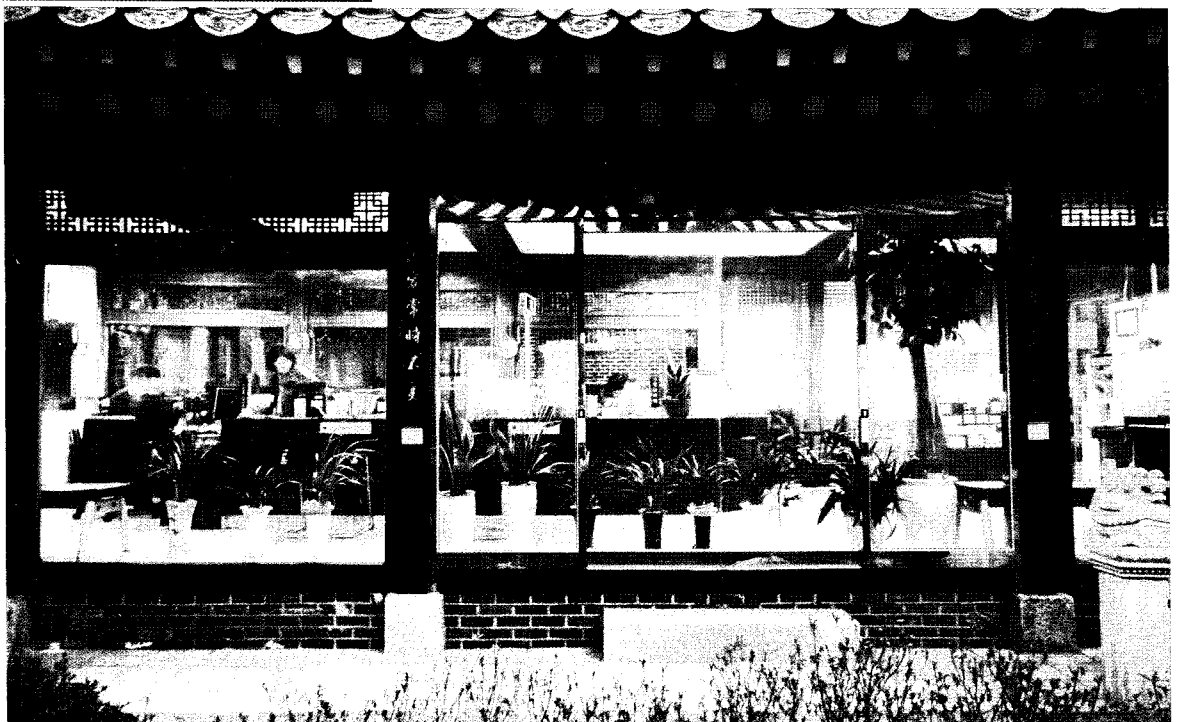
“아니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선출직이니까 정년이 없지만 전 이제 공무원 정년 4년 남았걸랑요!”

“왜 화가 나셨남유!”

“저희 동사무소는 종로구 19개동 가운데 유일하게 평생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좀 마련해야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아님 저 그만 돌립니다.”

그래 대지 244평의 한옥을 평당 1,300만원 총 32억에 사들인다. 이 집은 원래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 한소제(1899~1997)가 1940년대에 만든 한옥.

1923년 도쿄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소제는 1946년 한국 걸 스카우트를



창설하면서 이름 석 자를 역사에 남기지만 1961년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이 한옥은 대한민국 최고의 빵집 나폴레옹제과점 사장에게 넘어가고, 한옥 관리가 힘들어 매물로 나온다.

이걸 확 때려 부수고 널찍한 현대건축을 새로 지을까! ㄷ자형의 한옥 건축면적이 기껏 75평에 불과한 거다. 이제껏 13명의 직원이 180평을 써 왔는데, 세종대왕이 쓴 주련이 동장의 마음을 혼든다.

家傳忠孝世守仁敬(가전충효 세수인경)

집에서는 충과 효를 전하고 대를 이어 어짐과 공경함을 지킨다.

“아빠, 주련(柱聯)이 뭐야!”

“기둥이나 벽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좋다 한옥으로 가자.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

설계 입찰. 조달청은 4,200만원을 입찰가로 제시. 10여개 업체가 총을 쓴다. 참고로 설계비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해야 된다. 전국에 전통 건축 설계사무실은 몇 개일까요? 37개다. 그중 서울에만 7개 업체가 있지만 다들 생활고. 한겨레건축사사무소의 김성곤 당선.

“아빠, 가장 싼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당선되는 거야?”

“아니, 조달청 제시 금액의 87.745%에 근접한 업체에.”

그래 75평의 한옥 리모델링 설계비는 3,700만원. 어라, 그럼 평당 50만원이네. 또 까지갸군. 공사업체 다시입찰. 6억 2,700만원 당선. 평당 8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그럼 이거 역시 까진다.

조달청 관계자 여러분. 좀 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인문화적인 건축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결랑요. 군 막사 짓는게 아니잖습니까!

설계자 김성곤은 최소한의 설계로 간다. 서까래 보수하고 기와 전면 교체. 뒷마당의 사랑채 철거하고 화장실 덧대는 걸로 끝. 내부 칸막이 벽체 다 뜯어내고 열린 동사무소 완성. 안마당 쪽 3면은 전부 전면 유리설치. 투명한 행정. 돈 봉투 주고받을 일도 없고.



난리가 났다.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지자체 관련자들이 몰려들고, 안마당에 티테이블이 마련됐다. 하도 관광객이 몰려 들어서, 외국인들은 원더풀을 연발하고, 왜 시민들이 이 한옥 동사무소에 뽕 가는 걸까! 명품건축이라서! 아니다. 우리 시민들은 조선을 그리워하는 거다. 회한의 건축. 연륜. 비 안 새고 바람 잘 통하고 따스한 집. 긴 처마는 석양 빛 막아 주고, 안마당에 서는 2백년은 됴직한 향나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째 이리 좋은지 모르겠다. 난 이런 건축가 없는 건축이 좋다. 단아한 건축.

